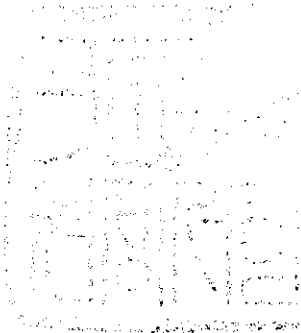


국통 75-7-32

最近北韓의 海外宣傳戰略과 그 對策

1975. 6.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possibly 'Jin' or similar.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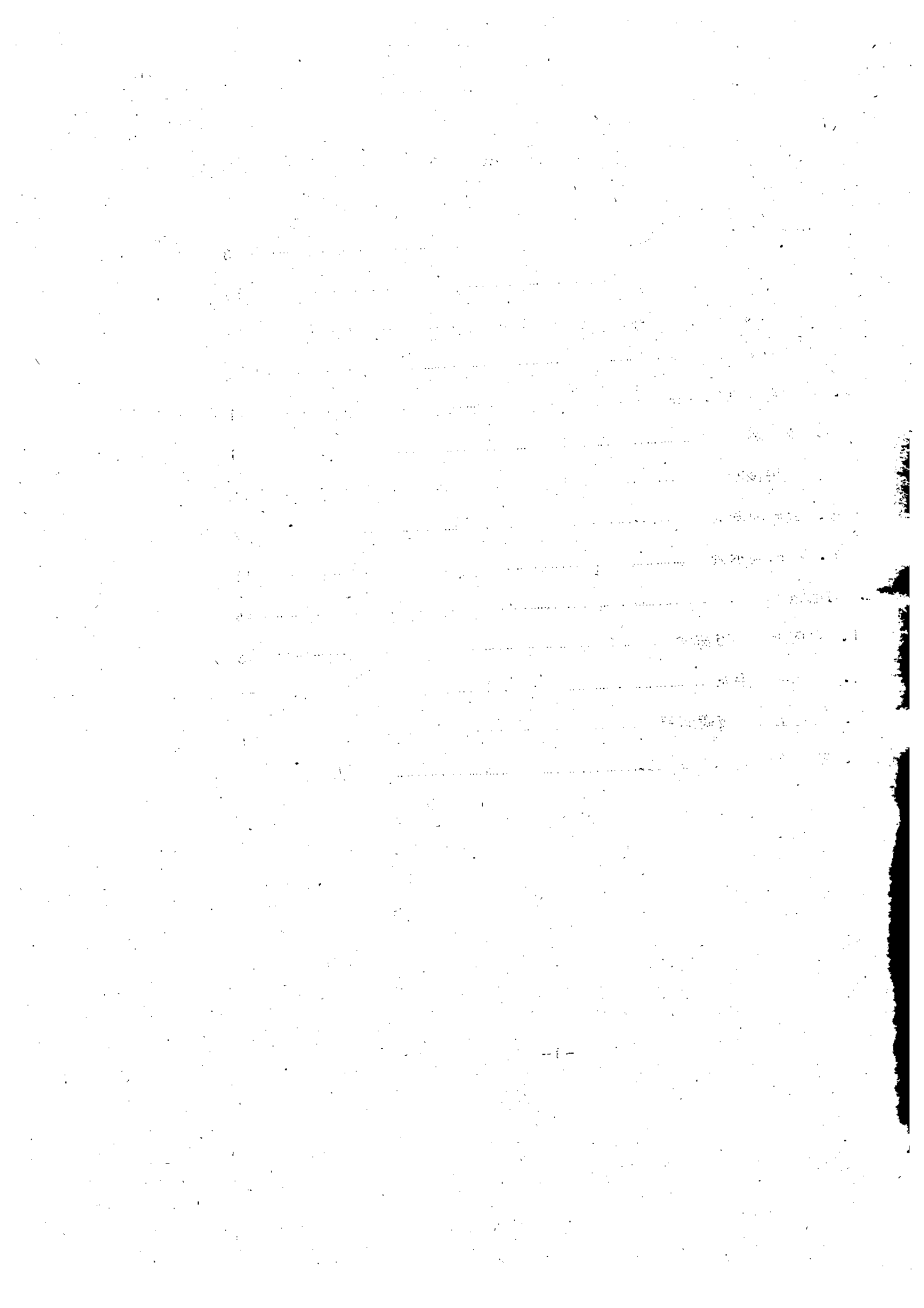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6.

研究責任者 梁 好 民

目 次

一. 宣傳戰略의 目的	3
二. 宣傳戰略의 形態	13
1. 文書上의 宣傳 煽動	13
2. 招請 및 訪問外交	18
3. 그밖의 宣傳形態	31
가. 放 送	31
나. 親善機關	36
다. 藝術團派遣	39
라. 商品展示會	41
三. 対応策	45
1. 対応上의 方法論	45
2. 対応의 手段	50
3. 対応上의 技術問題	61
4. 結 論	66



一. 宣傳戰略의 目的

北韓의 對外宣傳戰略은 自由圈에 속하는 국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하에 전개된다. 그것은北韓이 갖고있는 공산주의라는 체제상의 성격과 分斷狀態에 있는 특수한 여건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나라가 가지는 대외선전의 목적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호응을 얻는 것으로,北韓의 대외선전도 이 大前提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나라의 경우는 자기나라의 지위향상에 큰역점을 두고 있으나北韓의 경우는 보다 호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남북한 分斷狀態를 하나의 과도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같은 分斷의 固定化를 인정치 않으며, 궁극적으로 南韓을 병합,

한반도에 통일된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그들의 목표는 그들이 발행하는 모든 선전자료에서 실재없이 되풀이 주장되고 있다.

金日成의 개인숭배 우상화와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하는北韓의 노선은 金日成의 「저작선집」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다.

金日成은 1968年9月7일 북한정권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보고를 경축대회에

서 행했다.

3개부분으로 나뉜 이 장문의 연설문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여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여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대하여」란 부분에 그들의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밝혔다.

金日成은 이서두에서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은 「조선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라고 전제하고 「우리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美帝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美帝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대외활동분야에서 우리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방침이다」¹⁾라고 말했다. 여기서말한 대외활동분야」에서의 金日成의 방침은 북한에서는 바야블과 같은 것으로서 金日成이 이를 바꾸지 않는한 그리고 그가 계속 집권하는한 불변의 것이다. 또 그는 「美帝國主義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해방도 이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그들의 목표는 북한노동당 규약전문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反帝反封建의 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들의 대외선전의 당면목표는 남한의 적
화를 바탕으로 하여 대외선전을 위한 기본원칙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대외선전의
기본방향은 ① 南韓에서의 공산화혁명수행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② 北韓의 이른바 사회주의건설의 성공적수행을 위한 국제협력강화
③ 북한의 지위향상과 상대적인 대한민국의 고립화추진에 두고있다.
이는 곧 對外선전의 基本方向인 동시에 북한의 對外정책목표이기
도 하다」²⁾

북한의 대외선전은 국가의 목적을 이룩하는 한手段이며 또 북한의
의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돕는데 그 목적
이 있다.

北韓의 外交基調는 ① 소련을 비롯한 共產諸國과의 정치·경제·문
화관계를 강화하고 ② 共產諸國 및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諸國과 반제국주의 특히 反美를 근간으로한 유대강화 ③ 그
리고 교류가능한 모든나라와 실리적인 통상확대 ④ 대한민국의 약화
와 그들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있다.

1961년 9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 4차대회에서 金日成은 「사회주
의진영의 통일과 이 진영국가들간의 친선과 협력관계의 발전은 각기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고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
을 용이하게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진영
의 성공과 그 不敗의 통일을 강화하며 소련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

義國家人民들과의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北韓의 이러한 대외기본노선은 앞으로도 바뀔수 없겠지만 북한 의 외교정책수행과정에서 中共과 소련과 북한과의 삼각관계로해서 때로는 中共 때로는 소련의 영향이 보다 질게 투영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60년대 전반에 中共과 소련의 대립격화가 있었으나 이시기에 는 中共의 노선을 지지했다.

그러나 65년경부터는 中共과의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갔다.

中共에서 일어난 文化革命과 월맹에 대한 원조문제를 놓고 北韓·中共간에 의견이 엇갈린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70년 4월에 中共首相周恩來가 평양을 방문하므로써 다시 중공과 북한은 전의 관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해방직후 북한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여 소련군의 탄압 아래 소련의 대외정책에 맹종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北韓은 가능한한 中共·蘇聯사이에서 中立을 유지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北韓이 第3세계에 눈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외교강화를 시작한 것을 공식으로 발표한것은 66년 10월의 「조선노동당대회」에서였다. 이때 金日成은 「자주노선을 관철할 자세를 견지」할것을 역설하면서 「第3세계의 신흥국 민족해방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北韓의 外交的地位向上에 가장 큰 지원자 역할을 한 것은 이들의 對外宣傳이었다. 그 때문에 北韓은 오늘날 대외선전을 그 때문에 北韓은 오늘날 외교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北韓은 전반적인 선전전략을 수행키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비서국을 최상위 기관으로 그 산하에 국제부, 노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정무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각 산하기관을 집결시켜 對外宣傳活動을 전개한다.

北韓에서 벌이고 있는 대외선전의 목적은 포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들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지원에 있기는 하나 그중 역점을 두고있는 것은 南韓을 포위하여 궁극적으로 적화한다는데 두고 있다.

그들이 설정한 대외선전의 기본적방향은 南韓에서의 공산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여건조성, 북한의 국제적지위향상과 상대적인 대한민국고립화 그리고 이와 아울러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건설의 성공적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그들이 대외선전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의 선전지침은 불록별로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對共產國 대외선전지침은 ①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순수성보장 ② 自主路線에 입각한 사회주의건설과 자체혁명수행 ③ 反帝투쟁에서의 통일적지원체제화 ④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국제주의 원칙전지등을 통해 金日成의 우상화를 정당화하며, 中.蘇로부터 反美투쟁

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이른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경제원조 및 기술협력을 최대한 유치하는데 선전의 역점을 두고 있다.

對中立에 선전에서는 ① 반제식민주의 및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연대성포방 ② 북한의 평화성, 비파리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의 연대성강화를 위한 행동포시 (예, 중동전쟁에서 아랍권에 대한 불심양면의 지원), ③ 북한의 주체사상전전으로 金日成 위상화전과등을 통해 中立諸國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철수압력유도 내지는 그들이 늘 주장하는 위장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므로써 유엔에서의 북한지지세력을 확대해가는데 선전의 역점을 두고 있다.

自由國에 대해서는 ① 相異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간이라도 호혜평등 및 주권존중아래 관계개선주장 ② 강대국의 평화공존노선 영합태도로 평화이미지 부각 ③ 현상고정화수금태도로 동거리외교유도 ④ 선전시설자재도입 및 경제교류전망과장선전등으로 한국의 지원세력인 자유우방국가들에 침투하며 이들 국가들과 한국을 이간시켜 한국의 지원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본주의국가간의 시장경쟁을 자극시켜 상호대립을 조성하는 등에 선전의 역점을 두고 있다」³⁾

北韓에서 설정한 對外宣傳煽動의 목표는 그들이 북한에 정권을 세운이래의 것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키위한 戰略에는 그동안 별 변동이 없었어도

전술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戰術上의 변화는 北韓내의 정치·경제·문화의 발전, 그리고 세계의 국제정치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北韓은 오래도록 공산권국가중에서도 폐쇄성이 짙은 집단으로 이 폐쇄적인 대외정책의 수행기간에는 당연히 대외선전활동도 그 적극성에 비해 실효가 크지 못했다.

그들의 對外선전활동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外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 세계외교에서의 탈피를 北韓集團이 적극 화합과 동시에 더욱 활발해졌다.

그시기는 닉슨大統領이 中共을 방문하고 國際정치가 긴장완화를 더듬기 시작한 지난 수년으로 잡을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多樣化推勢의 경향에 따라 근년에 이르러 그의 對美·對日姿勢가 강경일변도에서 유화정책으로 점차 변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외관계의 폭을 넓혀 국제적지원세력의 변화 내지는 적대세력의 중성화에 역점을 두고있다. 또 군사적으로는 소련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中共에 밀항하면서 양국간의 갈등 속에서 자기생존과 자주추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그의 對南戰略에서는 긴장과 대결이라는 冷戰倫理의 테두리 안에서 뱅뱅 돌면서,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자신들 긴장완화의 尖兵으로 위장하는 2중전략을 끌어내어 구사하고있다」⁴⁾

北韓은 이상과 같은 선에서 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그것을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대외선전공세역시 앞으로 늦출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발돋움하기 힘들던 폐쇄적정책시기에는 第3世界에 선전의 역점을 두던 것을, 多極化의 국제구조하에서는 제3세계와 함께 西方世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침투해갈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앞으로 그들의 對外宣傳煽動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 갈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한국의 내부사정이 불안하고 국제적인 對韓여론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들이 얻는 이득은 점점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金日成이 인도차이나의 赤化와 때맞추어 中共을 방문하고 1개월 후에 다시 루마니아를 방문한 것은 복합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對外宣傳戰略의 측면이 있음을看過할수 없다.

그는 中共에서도 그러했지만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를 방문했을때도 한국의 정치적사태를 예로들어 헐뜯고 한국의 국제적여론 악화를 조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한걸음 나아가 한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날 경우는 과시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金日成이 직접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내에서 金日成이 바라는 赤化統一의 시기가 성숙되고 있음을 재강조하면서 그는 인도차이나事態以後 방문의교의 일선에 뛰어든 것이다.

北韓의 對外宣戰戰略展開에서 인도차이나事態가 갖는 의미는 큰것으로 여겨진다. 北韓은 인도차이나事態가 그들의 궁극목표인 南北韓의 적화통일을 위해 프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 확실

한것 같으며,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할것인지 아니면 非武力的方法을 택할 것인지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의존하게 되겠지만, 이 시기를 이용 共產諸國으로 부터의 호응과 第3世界로부터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얻기위한 선전공세는 앞으로 가속화시켜갈 것으로 여겨진다.

北韓은 인도차이나事態를 남한과 북한과의 不均衡을 만들어내는데 적절한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들의 對外宣傳戰略에서 ① 對南 包圍 ② 이를 위한 반미사상고취 ③ 北傀의 지위향상 ④ 북한내부를 공교화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얻기위한 선전에 온힘을 기울여갈 것이다.

二. 宣傳戰略의 形態

1. 文書上의 宣傳煽動

北韓의 對外 선전전략중의 형태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서를 통한 선전선동이다.

北韓은 이를위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또는 외교관계를 안맺고 있으나 가능성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더라도 침투가 가능하면 이 문서를 통한 선전의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들이 第一의 敵으로 삼는 美國과 西方國家들에 對해서도 그들은 선전공세를 띄고 있으며 그와같은 선전문서의 수와 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확실한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으나 北韓에서 문서를 통한 선전 대상국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日本이다. 그것은 그들의 기본목표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있고, 또 한국과 日本과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수많은 재일교포가 日本에 살고 있다는 실정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東京에 지역적선전지원자료센터를 두고 있으며 그밖에도 인도의 뉴델리,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알제리아의 알제이, 쿠바의 아바나등지에도 이 지역적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 3국을 통한 郵便送付를 한다던지 간행물발행지를 한국으로 위장한다던지, 또 한국의 간행물 내용을 변조하는등 갖가지 수단을 모

두 동원하여 대외선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들이 문서상의 선전을 하는데 있어서의 媒体는 신문, 잡지, 화보, 金日成 著作集과 그밖의 간행물등으로 그 나라말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예가 가장 많으나 이와 평행하여 한글을 그대로 사용한 선전문서도 배포되고 있다. 그밖에 신문광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부적 늘고 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는 영국의 「런던 타임즈」나 美国의 가장 권위있는 「뉴욕 타임즈」紙의 광고페이지를 비싼 값으로 사서 북한의 건설상과 발전상을 광고하기도 한다. 75년 5월초에도 「뉴욕타임즈」紙에 北韓의 대대적인 선전광고가 났다.

越南이 베트남 수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東南아시아 국가중 월남에 한국어로 쓰인 선전책자가 가장 많이 흘러들어 갔다. 한국어로 쓰인 것은 「청춘의 노래」 「강물은 흐르고」 「항일투쟁기」 「실업인의 복음서」 「귀향」 「내일의 설계도」 「낙동강畔」 「나침반」등의 장편소설과 소책자등 그리고 년초에는 년하장등이 주월한국대사관이나 교포 및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발송되었다. 또 월남에 대한 北韓의 선전전략은 심리전의 성향이 강해서 베트남이나 월맹군을 통해서 주월한국군에게 염전사상을 고취하는 뼈라를 수없이 뿌렸다.

이에 비해 한국인이 아주 적은 크메르에 보내는 선전문서는 볼 어관이 많았다.

『西独에서는 <신생활> <강물은 말이없고> <三·一文學>

〈귀향〉 〈東海新聞〉 〈마르크스主義의 세가지 원천과 근원〉
 〈回想起〉 〈동대〉 등 우리말로 된 책자 화보·新聞등을 주로 교
 포유학생에게 배포하고, 美國에서도 〈생일날〉 〈국가와 革命〉
 〈자주경제론〉 〈東海〉 그리고 각종 소설 수필 단행본들을 공판
 직원 유학생 교포 도서관 美國務省등에 보내고 있다』⁵⁾

그런데 선전물들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점은 ① 金日成의 이미지
 부각 개인숭배화강조 ② 독자노선강조 ③ 북한의 경제발전상
 선전 ④ 한국에 대한 비방등을 그 어느것도 망라하고 있으나
 그것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時間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北韓의 대외정책과 對南韓戰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중 지난 몇년동안 변함없이 가장 많이 치면을 차지하는 것은
 金日成의 부각이다.

「71년에 현지에서 소위 金日成노작을 발간한 것을 보면 日本
 (6), 파키스탄(5), 이집트(5), 레바논(2), 모리타니아(1),
 이탈리아(6), 스웨덴(3), 영국(1), 미국(3), 칠레(3), 콜
 롬비아(2), 쿠바(2), 우루과이(3), 페루(3), 中共(1), 버
 마(8), 인도(10), 시리아(1), 브라질콩고(1), 나이제리아(1),
 프랑스(1), 西獨(1), 덴마크(3)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각종선전용으로 사용하는 현지어는 아랍어 5종, 스
 페인어, 독일어, 영어, 日語, 프랑스어, 中東語, 버마語, 러시아어, 힌두
 어, 서부 벵갈어, 우루두語(파키스탄) 등 16종으로 알려졌다』⁶⁾

이러한 성향은 75년에도 변함이 없다. 日本 東京에서 日語로 발행되는 「朝鮮畫報」 3월호(발행인 文東建, 편집인 金炳元)는 56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에 金日成과 시아누크가 껴안고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나 있는데 金日成의 얼굴만 부각되어 있다. 첫 페이지를 비롯 金日成의 사진은 15매에 이른다. 또 역시 도쿄에서 발행되는 「조국」(75년 1월호·편집발행/조국사/평양시 중구역 남문동·印刷發行·時代社·東京都文京区白山 4 - 33 - 14)은 종합지의 형태비슷한데 총 131 페이지에 모두 8매의 金日成의 얼굴이 나온다.

첫 페이지에 金日成을 찬양하는 노래에 이어 2 페이지에 金의 칼라사진 이어 「수령님께 드리는 축하노래」가 들어 있다.

「설명절을 맞을 때마다 깊어지는 생각」이란 수필에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많은것을 생각해 한다」고 전제하고 이어 둘째 파 라타 프에는 「그 가운데서도 저는 경애하는 아버지 金일성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설명절을 보다 즐겁게 맞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로 이어진다.

이 책자에는 「아버이수령님의 뜨겁고 넓으신 품」이란 제목이 4번째로 눈을 끄는데 1 페이지도 안되는 이 글의 제목이 심히 눈을 끌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다음 그 몇구절만 인용한다.

「1934년 음력설을 앞둔 어느날, 종파분자들은 다홍왜에 주둔해 있던 조선인민 革命軍의 한중대를 찾아가서 대원들을 보고 녀의들

은 다 민생단원이기 때문에 같이 설을 설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대원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아
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그 중대에 찾아가시
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
어 종파분자들을 혁명대오에서 내 쫓으시었다.

그리시고 수령님께서서는 민생단 협의자들과 설명질을 쇠시었으며
정월보름까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
주시었다.....」기)

이처럼 金日成에 대한 우상숭배경향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唯一思想 체계화운동이 싹튼후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러
나 金日成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강도는 日本의 경우와 그
밖의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

물론 日本내에 배포되는 선전책자에도 北韓의 농업건설상과 공업
건설상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으며 北韓이 多極外交를 하고 있다
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구미
선진국에 배포되는 선전책자에 비해 빈도나 편집상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한가지 눈을 끄는 것은 한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歪曲 宣傳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日語로 된 대외선전책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종교
계, 학계의 인사를 군사재판에 걸어 집단적 학살, 처형하려고 혈안

이 되어 있는 ○○○ 일당의 이같은 만행은 古今東西의 역사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폭거이며 ○○○ 일당과 같은 현대의 살인집단 만이 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 . .]⁸⁾

이러한 한국의 권위 실추를 위한 노력은 정치적인 측면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술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예술문화에 대한 공격도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는 하지만 金日成의 저작집을 인용하는 예가 허다하다. 「오늘의 조선」 74年11月号(일본어 발행)는 「퇴폐적인 남조선의 예술」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 그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말을 인용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美日반동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따라 우리의 민족문화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文化」와 日本色 日本물이 든 풍조가 활개치고 인민의 정신세계를 말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결론부문에서는 「南朝鮮人民은 민족의 태양이며 전설적영웅이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主席의 현명한 지도하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공화국의 주체예술을 동경하며 . . . 」라고 쓰고 있다.

2. 招講 및 訪問外交

文書를 통한 대외선전선동과 함께 北韓의 선전정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외국의 정치인 문화사절, 학자 등을 종망라한

초청외교를 들 수 있다. 北韓은 어떤 계기를 잡아서 이 초청외교를 하는수도 있지만 계기가 없을 때는 적극적인 공작에 의해서 그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 같은 초청외교에서는 그 외교관 어휘가 말해주듯 정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며 각국의 정계인사 초청의 비율이 다른 인사들의 초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청외교는 수나 질의 면에서 70년대에 들어와선 현저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왔다.

이 같은 초청외교의 성격과 그 폭을 알기 위한 한 특정한 기간의 그들의 동향을 한 케이스로 들어 보겠다.

74년7월을 하나의 케이스로 잡아 이를 분석한다.

이 한달동안에 北韓에 초청되어 평양을 방문한 국가들은 콩고, 노르웨이, 이집트, 멕시코,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그리스, 페루, WHO (世界保健機構) 프랑스, 덴마크, 칠레, 버마, 日本, 레바논, 불가리아, 오스트라리아, 몽고등 다양하다. 그 중에는 外交의 수뇌, 상공인, 공산당 간부, 경제인 단등 각종을 망라하고 있다.

이 동안의 초청외교에서 표면에 나타난 北韓의 인물중 주요인사는 약 25명으로 그 대표단의 중요성과 지위 성격을 고려, 그때 그때 적절한 사람이 이를 접견 北韓의 발전상을 선전하고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 동안의 초청외교 표면에 나타난 사람은 金日成을 비롯하여 崔庸健, 康良煜, 金一, 崔賢, 吳振宇, 金東奎, 金仲麟, 朴成哲, 李根模, 徐

哲, 金英柱, 韓益洙, 李勇武, 楊亨燮, 延亨默, 玄武岩, 林春秋, 許淡, 崔載羽, 金英雨, 洪成南, 鄭準基, 吳泰成 姜成山 등이다.

이중 金日成은 실제로 이 한달동안에 6개 대표단을 직접 만났다. 74년 7월 9일 인도네시아政府 대표단과 회견을 가진 것을 비롯해서 11에는 노르웨이共産黨 대표단과 회견하였고 15일에 프랑스 공산주의 청년대표단과 회견, 19일과 21일에는 칠레사회당대표단 그리고 불가리아 인민군 總政治局長夫妻와 회견했다. 또 22일에는 「레바논·朝鮮連帶委員會」 위원장과 회견했다.

金日成을 포함한 25명의 북한정권의 주요 인사들중 가장 많이 외국사절단과 접견한 者는 許淡이다. 許淡은 外交部長의 지위를 가진 점에서 그러하지만 1개월간에 13개대표단을 접견하는 호스 테스 역할을 했다.

許淡이 작년 7월 한달 동안에 접견한 인사와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 2日 = 이라크大使
- △ 6日 = 인도네시아 政府대표단 출영
- △ 6日 = 인도네시아政府대표단 초청연
- △ 7日 = 인도네시아정부대표단과 회담
- △ 9日 = 主同
- △ 10日 = 인도네시아 대표단 환송
- △ 12日 = 케루外務省副書記 초청연
- △ 29日 = 쿠바大使와 회견

- △ 29日 = 오스트라리아平和 운동대표단과 회견
- △ 30日 = 루마니아外相출영
- △ 30日 = 政務院 루마니아外相 초청연
- △ 30日 = 루마니아外相과 北韓外交部長간의 회담
- △ 31日 = 上同 9)

이들이 벌이는 招請外交에는 편의상 平壤에 들어와 있는 强국의 대사들도 포함시켰다. 이상 金日成과 外相許煥의 주요동정을 抽出하여 나열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이렇다 할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北韓이 놓여있는 地政学的인 위치와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對南戰略등 여건이 감안되어 北韓은 中共과 소련 사이에서 그들의 위치선정에 자그마한 變化가 이미 엿보이고 있었다.

北韓은 이해 7월 6일에 소련 그리고 11일에는 中共과 「우호협조호상원조조약」 체결 13주년을 맞아 각종의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이 일련의 연회를 위한 동정에서 北韓이 이미 中共쪽으로 편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 들어났다.

이 조약기념에 관한 對蘇, 對中共 행사를 비교해 보면 中共의 경우는 吳振宇등 요인이 출석하고 있지만 소련의 경우는 黨政治委員 클라스는 출석하고 있지 않다.

또 연회에서의 축사의 내용도 中共과의 경우는 「友好」외에 「전투적단결」이란 말이 들어 있지만 소련과의 경우는 단순한 「우호」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의 北韓의 對中共 및 소련과의 관계의 일단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련 및 중공과의 「호상원조조약」 13주년 기념에 관련된 노동신문의 논조를 추려 본다.

7월 6일자 노동신문은 対蘇路線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① 북한소련의 우호는 공통의적,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맺어지고 굳혀진 것이다.

② 소련인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의 조국해방투쟁을 지지하고 도왔다.

③ 「조선전쟁」(6.25 동란) 때 물질양면의 지원을 하고 전후에도 부흥건설 사회주의건설을 각방명에서 도왔다.

④ 美帝國主義의 남조선점령을 규탄하고 자주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 및 연대를 보내주어 오고 있다.

⑤ 두나라의 우호협력 관계는 마르크스·레닌主義,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⑥ 北韓·소련우호가 두나라인민의 이익과 사회주의·국제공산주의의 이익에 부응하여 강력히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한편 7월 11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對中共 논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 13년간 북한중공조약은 인민간의 전투적우호를 한층 강화발전시켜 두나라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획득물을 굳게 지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했다. 북한 중공의 우호는 <피

로 맺어져 > 역사의 모든 시련을 이겨낸 <不敗의 형제적우호>이다. 실로 이 우호단결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모범>이 된다.

② 중공인민은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 批林批孔운동에 있어 승리를 쟁취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제를 한층 공고히 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③ 북한중공의 우호는 金日成과 毛沢東이 친히 구축하고 키운 위대한 우호로서 <무엇을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는 없다. 朝中友好를 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금후도 형제의 중국인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승리할 것이다. 북한·中共友好는 영구불멸이다』

이 두가지 사실에서 엿보이듯이 北韓의 對中共 논조는 한층 밀도 짙은 것인데 비해 소련에 대한 것은 그렇지가 않다. 對蘇論調는 양국간의 과거의 경과보고서 이상의 인상은 주지 않으며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의례적인 현상보고의 인상이 짙다.

이에 비해 對中共論調는 상당히 강조된 형용사가 도처에 나와 있으며 북한이 對中共關係維持에 힘을 들이고 있음을 명백하게 부각시켰다.

앞서 金日成과 許淡의 초청외교 동태를 살펴 보았는데 북한의 對中共 접근도를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위해 吳振宇의 초청외교상의 월간 동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1日 = 中共臨時代理大使 • 북한중공조약 13주년 초청연

△ 21日 = 알바니아 國立民族歌舞團과 회견

△ 21日 = 上 歌舞團 공연관람

이상 吳振宇는 그 빈도에 있어서 外相인 許淡보다 훨씬 적으나 北韓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그가 中共의 임시대리대사를 직접 초대연에서 만나 호스테스 역할을 했다는 것은 北韓의 對共產國 외교 특히 中·蘇간의 그들의 외교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는 하나의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뜻을 갖는다.

北韓外交의 對中共偏向傾向은 그들의 궁극목표인 남한을 포위하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과 관련 주목을 끈다.

北韓은 크메르가 크메르 루즈의 손에 넘어가고 越南이 베트남에게 항복하는 등 인도차이나半島의 적화와 때를 맞추어 北京을 먼저 방문한데서도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中·蘇에 해당하지만은 않는다. 北韓의 外交, 경제, 정치의 전개상, 北韓에서 비중을 두는 나라와 안두는 나라의 경우는 北韓의 서열상 그리고 직책상 중요한 인물이 그 나라의 대표단이나 인사를 접견하느냐의 여부와 관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또한가지는 北韓에서 外交에 얼마만큼 더큰 비중을 두는 시기이나와도 관련이 있다.

北韓의 경우 大使級 외국인사의 접견은 대개의 경우 外相인 許淡이나 그밖의 상위 랭킹에 있는 인사들이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金日成이 大使를 접견하는 수가 있다.

· 74년 12월 5일 金日成은 기니아의 A. 카바라大使를 직접 만나고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기니아人民의 독립적민족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을 축하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통일을 지원해 준 색토래대통령에게 감사했다」⁹⁾

그러나 이러한 초청외교도 다른 선전전략의 각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多角的인 측면을 갖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외에 경제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다.

74년 7월 4일 영국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타 뱅크代表團이 평양을 방문 부총리인 崔戡羽와 회견 했다. 또 같은달 26일과 30일에는 영국 버크레이즈 국제은행 홍콩대표부대표 존. 트레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모건은행 국제국의 해로드. G 존이 리처드 오웬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모건은행 대표단이 각각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과 평양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협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외화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현재 진행중인 6개년계획의 부진에서 신기술도입과 프랜트의 도입에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한 교섭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또 74년 9월 파리의 금융계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8월 중순경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뱅크론을 도입한 것을 비롯 유로달러 借入에 광분하고 있다함과 경제를 위한 초청외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 정조는 최근에도 발견할 수 있다.

5월 19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해서 이란의 아슈라프 아흐라비 공주전하가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국가주석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란의 아슈라프 아흐라비 공주전하가 어제저녁 만수대 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인과 함께 연회에 초대되었다...』

김일성이 이란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란과의 경제협력에 있으며 그때문에 공주의 만찬초대에 까지 나간 것 같다.

北韓의 선전전략 전개에서는 초청외교 못지 않게 방문외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문외교에 동원되는 것은 비단 외교관이 아니라 北韓의 노동당 거물뿐 아니라, 과학자, 예술단, 언론인, 체육인 등 다양하다.

74년 12월 1개월 동안의 동정만 보아도 방문외교의 임무를 띠고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리고 대표단의 수는 15건에 이르고 있다.

北韓의 국제정치상의 위치나 내부사정도 있지만 金日成이 스스로 외국을 방문하는 예는 작년까지는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수년들어 金日成이가 직접 방문 외교전선에 나섰다. 작년 12월에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중에는 金東奎와 鄭準基 등의 거물이 끼어 있다. 74년 12월의 방문외교와 관련된 동정은 다음과 같다.

선
화

- △ 12월 3일 = 金東奎 루마니아에서 귀환
- △ " = 鄭準基 알바니아에서 귀환
- △ 4일 = 북한 무역대표단 불가리아, 폴란드 방문후 귀환
- △ 10일 = 북한 중앙방송대표단 유고슬라비아 향발.
평양예술단 싱가포르 도착
북한 중앙통신사대표단 소련에서 귀환
- △ 14일 = 북한 영화인동맹대표단 소련향발
- △ 15일 = 북한 무역대표단 中共 향발.
과학원 대표단 쿠바, 불가리아 향발
- △ 20일 = 유엔총회대표단 참가후 귀환
- △ 21일 = 북한 노동당대표단 콩고향발
- △ 24일 =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대표단 탄자니아, 잠비아,
부룬디 향발.
중앙통신사 대표단 유고에서 귀환
- △ 27일 = 무역대표단 中共전 귀환.
무역대표단 월맹에서 귀환¹⁰⁾

이 한달동안의 동정을 보면 정치인 내지 정치관계 대표단의 방문외교전수 4, 무역대표단 4, 언론대표단 4, 예술대표단 2, 과학대표단 1로 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은 매달 같을 수는 없고 다만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北韓의 방문외교의 형태는 각부문에 걸쳐 고루 배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갖는 체제상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이용, 을 코트.

프레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몇년동안의 북한의 방문외교를 통털어 볼때 가장 큰 사건은 金日成의 방문행각이었다. 인도차이나事態를 계기로 訪問外交의 일선에 뛰어난 金日成은 75年4月18日부터 26日까지 北京을 찾아갔다.

이 北京 행각에서 金日成이 中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어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對外宣傳의 기능은 충분히 발휘했다.

金日成이 中共訪問을 끝내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이 들어 있었다.

「... 中國측은 ○○○집단이 미국 제국주의의 지지와 교사하에 민족분열정책을 견지하여 南北共同聲明을 짓밟고 남북회담을 파괴하고 남한인민에 대한 팻쇼적 탄압에 박차를 가하여 남북한의 긴박한 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비난한다...」¹⁰⁾

金日成은 中共訪問에 이어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金日成은 5월 22일 루마니아政府가 배운 만찬회 연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역시 한국민의 반청부투쟁을 지원하고 적극 조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만일 『모든 외국군(駐韓美軍)이 남한에서 철수하고 남한사회가 민주화되면 우리는 인민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日成이 이처럼 방문외교의 일선에 뛰어난 것은 그들이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한후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인도차이나의 실패를 때 맞추었다는데서 깊은 관심을 모은다.

中共訪問에도 그러했지만 루마니아訪問에서도 金日成은 武力統一戰略에 관한 방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니콜라에 초세스쿠 루마니아大統領은 金日成을 환영하는 연설에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주장』과 국제주의적연대를 다짐했으나 「국제문제해결에 있어 무력이나 무력행사위협을 배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至上義務」라고 말하면서 「루마니아의 정책은 동등권과 내정불간섭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11)

이것은 루마니아政府가 金日成이 만약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을 수행할 경우 이에 개입이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 25일자 평양방송은 金의 루마니아방문을 이렇게 보도했다.

루마니아·北韓代表의 「회담에서는 자기나라 정세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조선과 루마니아의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하여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루마니아가 東歐圈에서 獨自路線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金日成으로서 초세스쿠 루마니아대통령의 그와 같은 발언을 예상 안했을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루마니아訪問은 루마니아로부터의 北韓의 對南韓

政策의 지원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루마니아가 東歐國家中 미국과 상당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金日成은 이번방문을 통해 美國의 對韓政策의 성격과 진의를 타진하는 한편 外貨고갈로 허덕이고 있는 北韓이니만큼 경제협력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논의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金日成과 함께 루마니아에 간 사람중에는 党中央委秘書인 金東奎와 黨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위원이며, 黨중앙위원회비서겸 총참모장 吳振宇도 끼어 있다. 그밖에 부총리겸 外相 許淡, 노동당중앙위 후보위원겸 對外경제사업부장 정송남 등이 끼어 있다.

이번 金日成의 방문외교에 참모총장 吳振宇가 끼어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끌고 있다. 吳振宇를 데리고 갔다고 해서 반듯이 군사적인 유대나 그들의 武力統一政策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吳振宇가 따라간점과 초세스쿠 루마니아대통령의 「武力배격」연설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낳게 한다.

그것은 루마니아의 對北韓軍事路線支持를 루마니아에 요청할 경우에 대비 루마니아 쪽에서 이에 대한 루마니아 政府의 태도를 미리 초세스쿠의 연설을 통해서 밝힌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金日成은 루마니아방문을 마치고 알제리아의 알제어로 갔다.

3. 그밖의 宣傳形態

가. 放送

北韓의 선전매체중 대외선전선동에 이용되는 放送은 特殊한 機能을 갖고있다. 北韓의 對外宣傳手段으로서 放送은 주로 韓國을 겨냥한 것이나 最近에는 가칭지역을 확대하여 日本의 재일교포에게 까지 잘 들릴수 있도록 했다.

內外通信이 금년 5月7日 밝힌바에 따르면 北韓은 최근 日本에서 日本전기회사(NEC)製 1천4백kW짜리 대형출력 放送기계를 발주 도입하고 있으며 작년 3~4월 沙里院의 放送출력을 1천kW로 平壤과 淸津에 있는 放送출력을 5백kW로 늘렸다.

內外通信은 또 현재 동경 1백25도42분17초C 북위 38도1분7초지점인 海州남사에서 송출하는 대남흑색방송이 지난해 4월부터 放送시간을 다시 2시간연장, 하루 8시간30분동안 韓國에 대한 비방 모략 유언비어의 조작유포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北韓의 對外宣傳煽動戰略중에서 宣傳의 측면보다 선동의 측면이 어느선전수단보다도 強하다. 그것은 주대상인 韓國인이며 韓國의 내부교란과 그들의 혁명기지구축이란 보다 好戰的인 측면을 放送수단을 통해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北韓에서 韓國을 向해서 행해지는 흑색방송의 內容은 南北會談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부터 격렬해졌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역시 심히 격렬해졌다.

이들이 방송하는 내용은 한국의 국가원수비방을 비롯 한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사태,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75년 5월 25일 平壤放送은 「괴뢰정부 우두머리는 무엇때문에 최전선까지 싸다니는가?」의 제하 노동신문을 인용 보도 했다.

이 방송은 「남조선괴뢰들이 총력안보요 戰爭狀態요하는 따위의 화약내 고약한 구호 밑에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는 북침소동은 더욱 위험한 표현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방송은 이어 金日成의 말을 인용 「美帝와 그 앞잡이들은 한편으로는 두개조선조작책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전쟁도발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한국이 전쟁을 도발할 것 처럼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이례는 인도차이나사태와 관련 주목을 끌고있다.

또 이날자 「남조선 생존권 투쟁」 제하의 평양방송에서는 『서울금호동에 살고있는 2천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괴뢰도당의 강제철거책동을 배격하며 앓아버티기 투쟁을 버렸다』고 말했다.

75년 5월 12일부터 1주일동안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나타난 대남비방방송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 5월 12일 ① 「군사팻쇼독재의 악정이 빚어낸 남조선 경제의 파탄」 ② 「이른바 대사관을 통한 日本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침투」 ③ 「사회주의나라 신문들, ○도당 인민투쟁을 보도」 ④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임금 지불요구」 ⑤ 「남조선 해운노동자 임금인상요구」 ⑥ 「남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 ⑦ 「남조선 괴뢰들은 반공소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⑧ 「印度신문, ○도당 범죄행위 폭로 규탄」 ⑨ 「민단계신문 ○○○도당 규탄」 ⑩ 「가디안紙 남조선에서 미군철수주장」 ⑪ 「남녘땅 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 5월 13일 ① 「남조선 괴뢰정권은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다」 ② 「美帝 侵略者들은 조국통일의 흉악한 원수」 ③ 「광란적인 반공전쟁소동은 파멸에 직면한 괴뢰악당의 단발마적 발작중이다」 ④ 「서울의 노동자들이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농성투쟁을 전개」 ⑤ 남조선해운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 ⑥ 「팻쇼깡패들이 강제수용소에 가두어 놓은 소년을 죽이는 만행을 감행」

△ 5월 14일, 15일은 자료입수 못함.

△ 5월 16일 : ① 「서울의 송아무개 변호사 ○도당규탄」 ② 「美帝는 핵무기에 의한 위협으로 결코 조선인민을 놀래울 수 없다」 ③ 「이른바 긴급조치 9호는 운명의 마지막 시각에 살고있는 괴뢰악당의 최후발악적 몸부림」 ④ 「남조선 괴뢰들은 운명의 마지막 시각에 살고있다」

△ 5월 17일 : ① 「남조선 괴뢰도당의 광란적인 반공전쟁소동과 팻쇼폭압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② 「일본사회계인사 ○도당규탄」 ③ 「긴급조치 9호는 파멸적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최후발악의 산물이다」 ④ 「상전의 소매자락 매달리

- 는 가련한 走拘」 ⑤ 「상진의 옷소매에 매달리다 봉변당한 남조선괴뢰들」, ⑥ 「○○○괴뢰도당이 팻쇼폭압에 더이상 매어달린다면 그것은 보다큰 혁명폭발을 가져올 것이다」, ⑦ 「남조선괴뢰군 오성산 남쪽비무장지대에서 무장도발」, ⑧ 「팻쇼억압의 날치기 조작자 ○○○역적」, ⑨ 「15일 남조선에서 민방공훈련 소동감행」, ⑩ 「印度勤勞記者聯盟」남조선기자탄압과 관련성명」, ⑪ 「망하는 자들의 말기증상」, ⑫ 「남조선 야당이 긴급조치9호를 선포한 괴뢰악당을 규탄」 ⑬ 「미치광이들의 분별없는 전쟁소동」

- △ 5월 18일 : ① 「日本の 인민들 긴급조치9호를 규탄」, ② 「전쟁도발에서 출로찾으려는 무분별한 불작난소동」, ③ 「美帝空軍機墜落으로 민간인착상」, ④ 「침략과 전쟁의 원흉 美帝의 야만적인 해적행위」, ⑤ 「신민당 긴급조치9호 해제운동」, ⑥ 朝日新聞, 남조선 특권층과 부유층의 심한 동요와 혼란」, ⑦ 「서울시 중구회관 종업원들 투쟁」, ⑧ 「남조선인민들은 반공과 훈공을 장려하는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⑨ 「○○○역적놈의 반공소동을 짓부시고 민족대결을 이룩해야 한다」

- △ 5월 19일 : ① 「16일 남조선 육군사격훈련감행」, ② 「남조선청년들 범죄행위 증가」, ③ 「남조선도당들, 해외에서 구걸행각」, ④ 「○도당폭압기구를 증강」, 「남조선 괴뢰군은 한도지나에서 엉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⑥ 「괴뢰군은

무장도발이 가져올 후과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⑦ 「남조선에서 빚어진 참극은 과연 누구때문인가」

⑧ 「이른바 남침위협외 구실밑에 감행되는 ○○○괴뢰도당의 발광적인 반공소동」 ⑨ 「남조선에서 개인영업제 대폭인상」

△ 5월 20일 : ① 「美帝는 힘으로써 그 누구를 놀래우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걸어치우라」 ② 「대검찰청 해외재산도피 집중조사비난」

③ 「일본신문 최근전쟁준비책동에 대해 보도」

④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방도」 ⑤ 「남조선권력층과 부호들 재산해외도피」

⑥ 「미국 걸프회사와 남조선괴뢰사이의 추악한 흥정」

⑦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항이 있고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⑧ 「남조선괴뢰경찰들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

⑨ 「남조선 병사들은 부모형제들과 한길로 가자」 ⑩ 「美帝独占資本家들과 남조선괴뢰들 사이에 벌어진 추악한 흥정음」

⑪ 「망조가든 괴뢰지배층 내부동요」

이상의 7일간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한국을 비난하고 나아가 선동을 위한 방송건수만도 총 63건에 이르고 있다. 이상 나열한 것은 제목이 뚜렷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글에서도 대남흑색선전선동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한가지 두드러진 현상은 그들이 위장된 평화통일을 직접강조하는 빈도는 줄어든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남북공동성명이후 한동안 대화의 길이 열렸다가 정돈상태 — 긴장상태에 이르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내의 불안조성과 전에 없이 「南에서 北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6.25가 터지기 직전에도 있었던 현상으로 주목된다.

나. 親善機關

北韓의 대외선전기관중 현지공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관계국과의 친선기관이다.

72년말 현재까지의 이친선협회의 수는 아시아지역에 8개로 57년 1월9일 네팔에 세워진 네팔북한친선협회를 비롯하여 버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등에 있다.

중동지역에 있는 친선협회는 이집트, 알제리아, 이락, 남예멘, 시리아, 레바논, 수단등 7개국이며, 아프리카지역에 설치된 친선단체는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시에라레온, 다호메, 브라자빌 콩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토고, 감비아, 우간다, 말리, 어퍼볼타등 국가에 설치되어 있어. 그 수가 가장 많아 12개이다.

공산권에 있는 친선협회는 중공, 월맹, 몽고, 소련* 4개국이다.

유럽지구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스로 8개국, 미주지구에는 캐나다, 칠레, 볼리비아, 페루,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7개국이다.

이상을 합해보면 49개의 친선협회가 세계각국에 흩어져 있으나
실지로는 그수가 배에 이른다. 그것은 현지에 있는 단체와 같은
명목의 단체만큼의 수를 北韓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것은 모두 친선협회의 명목을 가진 것이지만 그외의 명
목을 가진 협회도 있다.

친선협회란 명목이 외의 주요 친선기구는 미국에 2개, 일본에 4
개, 스위스에 1개, 영국에 1개, 모두 8개로 이들은 친서방국가라
는 것이 주목을 끈다.

이것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美国 : 「美国·북한공보센터」, 「북한인민과의 연대성위원회」
- △ 日本 : 「日朝우호추진의원연맹」, 「日朝노동자교류연락회」, 「日
朝문화교류협회」, 「日朝사회과학자연대위원회」
- △ 스위스 : 「스위스北韓公報委員會」
- △ 英国 : 「英朝親友會」¹²⁾

친선협회의 명칭이 붙은것이나 붙지 않은것을 망라해서 그수는
제3세계와 歐美에 압도적으로 많으며 년대별로 볼때 70년대에
들어와서는 歐美國家에 대한 친선기구설치가 많아졌다.

北韓이 외국과 맺은 친선기구는 自由圈에 속하는 친선기구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들이 하는 활동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보통 말하는 친선외교로
서의 기능이상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정보수집에서 공작, 金日成의
이론바 主体思想을 전파키 위한 세미나 개최등 북한외교를 측면에

서 돕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金日成의 主体思想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主体思想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를 설치하거나, 직접설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현지 주민들중 北韓에 경도한 학자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다.

이들이 主体思想을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는 지역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등 지역의 비교적 정치적으로 뒤지거나 파경한 국가들을 택해 중점적으로 행한다.

이러한 친선기구의 명목외에도 그이름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학술협회를 빙자한 많은 단체가 세계도처에 깔려있다.

그중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美國에는 이러한 학술단체가 金日成思想의 전파와 金日成이 부르짖는 통일방안, 대남비방을 통한 大韓民國의 위신추락등을 수행하는 공동전선에서 상당한 활약을 해오고 있다.

그 일례로 美國 워싱턴에 있던 「조선문제연구소」를 들수 있다.

이연구소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 또 언제부터 北韓의 위정당국자와 밀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10년전인 1965년 1월 8일에 金日成이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이란 것이 金日成著作選集 제 4권에 실려있다.

워싱턴의 조선문제연구소장의 편지에 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글은 수취인의 이름이 어느곳에도 없지만 이연구소장이 한국문제와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金日成에게 의견을

물인데 대한 회답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고 전제한 金日成은 한국 통일문제에 대한 선결조건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¹³⁾이라고 주장했다. 金日成에게 통일문제를 질문하는 편지를 보낸 이 필자는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점에 동의한 사실이 이 金日成의 글에서 들어났다.

「조선의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는 당신의 제의는 정당한 것입니다」¹⁴⁾가 그것이다. 그러나 동연구소는 들리는 바로는 재정안에 의하여 수년전 폐쇄한 것이 분명하다.

다. 藝術團派遣

北韓에서는 예술단을 파견, 대외선전수단의 일익을 담당케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단파견으로 거두어 들이는 성과는 다른 선전수단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그것은 北韓의 예술이 갖는 특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나가는 어느 한정부나 정권의 예술단은 엄선되게 마련이지만 그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감명할 만한 수준에 있지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北韓의 예술일반은 그 목적자체가 자유권에 속하는 나라의 예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北韓에는 정치선전에서 떠난 예술은 전혀 허용되지도 않으며 존

재할 수도 없다.

北韓에서 대외 선전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예술도 대내적인 예술과 마찬가지로 속성을 갖고 있으며 그지침은 1964년 11월 7일 金日成이 「문학예술부문 연구 일꾼들 앞에서」 행한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한데 대하여」란 논문에 나타나 있다. 이 지침은 발표 후 11년째 접어든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74년 11월호 「오늘의 朝鮮」(日本, 東京, 오늘의 朝鮮 편집실 발행)誌 25 p에 실린 「주체사상에 따른 문학예술의 창조」란 논문에 구구절절히 이 金日成의 논문이 인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金日成은 「우리당은 남반부의 2천만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 남반부 인민자신의 일일뿐 아니라 북반부 인민들의 혁명임무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을 미제국 주의자들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제8차 위원회에서 내가 말한바와 같이 세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¹⁹⁾고 전제하고 ① 남한의 혁명역량강화 ② 북반부에서 정치 경제문화 군사각방면의 북한의 혁명근거지강화 ③ 「美帝國主義」고립을 위해 「세계의 도처에서의 투쟁」을 들고 있다.

이러한 바탕을 둔 예술은 그 작품의 씨나리오, 플롯, 작품전개에 있어 정치성을 강하게 풍기고 있어 자유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만큼 세련된 연거나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는 인기를 쓸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北韓의 예술의 형태가 이렇기는 하지만 北韓은 예술단 파견을 대외선전전략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술단파견의 빈도는 정치적인 파견단이나 경제사절단보다 적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점은 예술단을 외국으로 파견할때 北韓의 예술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단원 전체가 정치적 활동 임무를 띠고 간다는 사실이다.

문화를 통한 대외선전과 다른 선전활동과의 차이점은 이 예술단의 활동이 외교전략수행의 측면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초청외교나 방문외교 그리고 분서상의 외교는 보다 폭이 넓은데 비해 문화활동을 통한 대외선전의 폭은 적다.

라. 商品展示會

북한은 외국에서 열리는 웬만한 상품전시회에는 가능한한도내에서 꼭 참가한다. 北韓과 적대관계에 있거나 그나라의 사정으로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와, 북한내의 특수한 사정어의에는 예외 없이 이 상품전시회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각종상품을 출품한다.

그러나 北韓에서 어떤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상품전시회나 박람회 출품하고 참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격상 自由圈에 속하는 나라들이 상품을 전시하는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美国·英国·프랑스 EC 각국, 日本 그밖의 자유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상품전시회에 물품을 전시하는 목적은 상품의 정보교환보다 많은 자기나라 물품을 다른나라에 팔기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일차

적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경제적인 목적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짙게 풍기고 있다.

北韓은 對外宣傳戰略戰術의 한 수단으로서 상품전시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오고 있다.

그 예를 하나들어보자. 북한은 75년 4월에 열렸던 트리폴리의 제 13회 국제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산유국중 여섯번째로 손꼽히는 北아프리카의 리비아의 首都에서 열린 이 박람회에는 40여개국이 참가했는데 북한은 한국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北韓館을 세웠다.

「北韓館에는 입구에서부터 金日成의 사진과 정치성어 짙은 선전물이 전시되어 있다」¹⁶⁾

이 박람회의 北韓館에는 정식박람회에서 선보여야 할 상품들은 2층에 전시되어 있었다. 상품선전에 우선한 정치선전에 역점을 두고있는 북한의 대외선전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 註1) 金日成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72년 2월 20일 발행) p.184.
- 註2) 北韓全書 上卷 (極東問題研究所, 74년 3월 20일 발행) p.389
- 註3) 北韓全書 上卷 (極東問題研究所, 74년 3월 20일 발행), p.3892390
- 註4) コリア評論 (75년 4월호 (日本東京, 民族問題研究所 발행), p.24
- 註5) 北韓全書 上卷 p.394
- 註6) 北韓全書 上卷 p.394
- 註7) 조국 1975년 1월호 (편집발행/조국사/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p.20
- 註8) 今日のチヨソン 1974년 11월호 (東京文京区白山4-33-14 朝鮮出版會館 발행), p.72
- 註9) "NORTH KOREA QUARTERLY," 1974 FOURTH QUARTER (함부르크, 아시아問題研究所 발행), p.33
- 註10) 75년 4월 28일字 日本・毎日新聞
- 註11) 빈똥 로이터通信 75년 5월 24일字
- 註12) 北韓全書 上卷 p.187
- 註13) 金日成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68년 9월 5일 발행), p.187

註 14) 金日成저작선집 4卷, p.188

註 15) 金日成저작선집 4卷, p.142~143

註 16) 朝鮮日報 75년 4월 5일 자

註 17) <<근로자>>, 1974년 4월호, p.30.

三. 對 應 策

1. 対応의 方法論

北韓의 對外宣傳戰略은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의 영상을 加급적 어두운 것으로 만들며, 그 위신을 최저에까지 추락시켜 國際적으로 高립화 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北韓의 영상은 최고로 끌어 올리고 그 國際的 地位를 최대한으로 向上시켜 北韓 主導下의 共產主義南北統一을 이룩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서는 大韓民國의 対応策은 北韓의 對外宣傳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國際的 地位의 강화와 國際利益의 확대에로 집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생각컨대 北韓의 對外的 宣傳과 이에 대한 大韓民國의 対応活動은 南北間의 전면적 정치투쟁의 중요한 一側面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國際政治와 外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으로 이 부문에서 北韓을 제압하는 것은 大韓民國으로서 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세계의 모든 國家가 그 大小와 국제적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對外的 政治-文化宣傳活動에 상당한 精力을 투입하여 自國을 外國에 이해시키고, 동조를 求하고, 親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國際政治에서 對外宣傳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對外的 선전전은 무력전이나, 경제전 다음으로 중요한 政治戰의 한 형식이다. 더욱이 韓半島나 獨逸같이 국토와 민족이 두개의 對立하는 정치단위로 갈라져 자기 스스로의 영향 안으로 상대방을 끌어 드리려는, 그리고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가능한 한 고립시키려는 동족간의 정치투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선전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의 量的 확대와 종목의 다양성과 막대한 재력투입을 고려할 때 北韓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對外宣傳活動을 軍司的 전투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서 이에 대한 우리의 對應策은 현실의 면밀한 분석과 科學的 方法과 예리한 정치감각을 토대로 完璧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對應策을 마련함에 있어서 第1次的으로 고려할 문제는 바로 方法論이다. 体系的인 方法論에 입각하지 않은 그때 그때의 미봉책이나 주먹구구식 편의주의나 또는 관료주의적 맨너리즘은 北韓의 對外宣傳의 戰略 戰術을 격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戰略 戰術은 이데올로기의이고 主觀主義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科學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對應策을 樹立하는 方法論上的 과제로서 다음 몇가지 點을 들 수 있겠다.

(1)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對外公報活動에 종사하는 각기관은 지금 까지 전개되어온 南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을 구체적인 통계와 분류작업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再評價하고 면밀한 決算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決算書에 입각하여 南北韓의 對外宣傳活動에 있어서의 강점과 취약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2) 大國民國의 政治社會體制는 北韓의 그것과 다름으로 北韓의 對外宣傳方式이 우리의 活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北韓의 宣傳에는 날조, 과장, 허위, 데마고그의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社會는 폐쇄적이요 따라서 當局의 發表와 다른 정보에 外國人들이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허위의 선전이 일부의 批判力없는 대중들에게는 일방적으로 通할 수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社會는 公開社會임으로 허위선전이나 모략선전은 곧 폭로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對外宣傳에 있어서는 客觀性和 正確性を 존중하는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公開社會에 있어서는 「眞實의 선전이 최선의 선전이라는 진리를 인내성있게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大韓民國의 對外宣傳의 내용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北韓의 그것은 不信을 당해 상대적으로 무력화될 것이다.

(3) 北韓의 허위선전은 뜻밖에도 世界到處에서 상당한 동조자를 획득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그 주요한 이유는 北韓의 量的으로 南韓을 월등히 능가하는 宣傳 資料를 전파시키고 있는 때문이다. 그들은 宣傳에 있어서도 「量의 質로의 轉化」라는 弁証法的 法則을 믿기 때문에 막대한 재력을 소모하면서 量的 擴大를 기도해왔다. 日本이나 第3世界나라 등에서는 勿論 西歐이나 北歐에 있어

서도 北韓의 宣傳物이 관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對策으로 韓國은 宣傳物의 量을 증대시켜야 할 緊急한 사태에 直面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質的으로 우수한 宣傳內容이라고 해도 배포량이 지나치게 不足할 때는 힘을 發揮하기 어려운 것이다.

(4)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은 상대국에 관계없이 劃一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切명적 弱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韓國은 宣傳對象國에 따라 宣傳의 內容을 달리하는 多樣性은 지녀야 할 것이다. 對象國이 國際政治上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곳 政治人들이나 知識人들의 관심 내지 고민이 무엇인지 心理的 分類에 따라 宣傳內容을 바꿔야 한다.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近代化 志向때문에 韓國의 工場商品 道路, 病院·都市 등이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나, 韓國의 固有文化 博物館, 民俗村 등에 관해서는 취미적인 관찰이상의 興味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関心이 꺼꾸로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아랍國에 대한 宣傳物에서 韓國 基督教의 소개가 크게 나타나 그것은 도리어 反感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愛國者들의 日本帝國主義와의 투쟁 기록은 外交帝國主義로부터 해방된 아프리카 新生國들에서는 共感될 수 있으나 美國이나 西歐에서는 그다지 興味를 끌지 못할 것이다.

(5) 共產主義國家나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對外宣傳法에서는 자기나라의 政治指導者의 모습이 우선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特別히 北韓의 경우는 對外宣傳에 있어서 또한 金日成 個人崇拜 作風으

로 중단되어 있다. 이것은 宣傳의 효과를 크게 말살하는 것이다. 政治宣傳이라는 체취를 강하게 풍기는 宣傳에는 많은 사람들이 外面하려는 心理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식인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政治變새를 풍기지 않는 政治 宣傳이라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능한 한 政治指導者들의 모습을 부각시키지 말아야 對外活動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指導者만 있고 國民不在라는 인상을 주는 宣傳活動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對外宣傳은 이러한 心理上의 기미를 잘 포착하여 「宣傳」色이 없는 宣傳으로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6) 北韓의 허위선전 또는 기만선전을 科學的으로 실증적으로 공박하여 그들의 活動을 무력하게 만드는 努力이 必要하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北韓의 선전물들은 우수한 기만과 모략, 허위, 왜곡과장이 섞여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실증에 의하여 폭로하는 對策은 科學的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단순한 감정적 공격이나 직선적 욕설은 도리어 北韓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中立的인 사람들의 반감을 위반할 念慮가 없지 않다. 따라서 누구가 보아도 納得할 수 있는 合理的 근거에서 극히 부드러운 論調로 北韓의 선전의 허구성을 이해시켜 동조자는 中立으로 中立的인 사람은 韓國側으로 기울려 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위한 인내성 있고 일관된 努力은 절대로 必要하다.

(7)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에 대한 對備策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現地에 파견되어 있는 外交官이나 公報官, 교포들의 經驗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서울에 앉아 예민한 現地感覺도 없이 官僚적으로 指示만 내린다면 우리의 対応策은 集中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現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自由裁量權이 부여되어 創意를 활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 必要하다. 그리고 現地の 宣傳 담당자들은 그나라 問題에서는 전문가가 되도록 자극을 주는 동시에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地域問題의 전문가와 宣傳活動의 기술 없이는 對外宣傳은 담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中央(서울)에로 宣傳의 깊은 소양과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무를 관장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現地에서 宣傳活動을 맡은 사람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되고 採沢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對外宣傳은 초점을 잃거나 非現實的인 徒勞로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2. 対応의 手段

北韓의 對外宣傳活動을 봉쇄하려는 韓國의 対応策은 당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해야 함은 勿論이다. 宣傳戰은 武力戰의 이치에서와 마찬가지로 敵이 大砲를 쏘면 이쪽을 대포로 쏘고 敵이 전투기를 띄우면 이쪽도 전투기를 띄워야

한다. 敵이 사용하는 모든 전투의 手段은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北韓이 예술단을 파견하면 韓國도 파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手段은 敵의 그것과는 성능이 달라야하고 부단히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여야 하며 낡은 수단과 수단의 사용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구사할 수 있는 対応의 수단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經濟-技術-文化交流

이것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對外宣傳의 주요한 수단이 될수있다. 北韓은 共產圈外에도 세계각국과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対応하여 우리나라도 그러한 交流를 西方諸國과는 勿論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한 交流가 韓國의 強調的 對外進出, 技術의 習得, 文化向上이라는 본래의 目的에 이바지 함은 勿論이지만 韓國의 全体的 이미지를 改善하고 韓國에 대한 親善感을 북돋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技術-文化交流는 우리나라外交의 취약지대라고 볼 수 있는 第3世界圈國家들에는 더욱 정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北京과 平壤側에 이미 경사 되어있는 第3世界의 多大數國家들이 급격히 國際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중에는 우리의 어떠한 努力으로도 親交할 希望이 없는 對北韓 密着國들이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정치적 입장과 동향을 嚴密히 분석하고 交流擴大不能國과 불가능국을 選別

하여 우리의 判証된 財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2) 招請外交

지금 南北韓은 모두 경쟁적으로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中立國의 政治家와 反韓國의 人士들도 주저없이 초청하여 우리의 長點은 인식시키고 단점은 이해시키는 努力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招請을 받고온 사람들은 歸國하여 韓國을 革新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더 損失을 볼것은 없다. 왜냐하면 北韓의 南韓에 관한 선전은 원래 최대로 나쁘기 때문이다. 또한 초청외교는 우리의 사절단 파견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利點도 가지고 있다. 초청의 대상에는 政治指導者는 勿論 學者, 言論人 作家 敎育者, 藝術家, 科學者, 宗敎人 등 지식인이 포함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政治家의 초청은 어디에서도 있는 범상한 일이지만 지식인의 초청은 共產國家에서는 소위 「인민의교」의 일환으로써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韓國이 앞으로 이들 지식인을 특히 第3世界에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實情을 알릴 必要性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직접 간접으로 자국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한나라가 後進的이면 後進國일수록 이들의 發言權은 그만큼 큰 것이다. 여기서 재삼 유의해야 할것은 招請의 호의로써 그들을 성급히 세뇌하거나 당장 利用할 것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본질상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며 自尊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초청함에 있어서는 長期的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3) 使節團派遣

어떠한 형태의 사절단이건 그 파견은 막대한 비용을
要한다. 그러므로 韓國의 能力에 맞도록 어떤 나
라에 어떤 사절단을 언제 파견할 것인가는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
으면 안된다. 사절단이라고해서 마구잡이로 빈번히 보낼 수는 없
다. 특히 政治人이나 國會議員을 파견할 경우는 그들의 政治能力
外交知識上의 전문, 外國語의 구사력, 人品 등을 고려하여 엄선해야
할것이다. 종래의 議員外交에서 노정되듯이 일종의 「위로출장」으
로 政治人들을 파견하고 그 선정기준을 해외여행기회의 배당형식으
로 정한다면 議員使節團의 파견은 국고의 낭비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使節團은 소요되는 경비가 막대함으로 꼭 必要한 때 必
要한 곳에 必要한 인원들을 골라 보내야하며 即興的이거나 미봉적
태도에서 보내던 종래의 파단은 급속히 지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다.

(4) 芸術團, 스포츠팀의 派遣

政治人들의 사절단과 병행하여 芸術團-體育팀을 파견하는
일은 지금까지 여러 번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도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므로 도저히 자주 보낼 수는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이것을 그들의 對外宣傳活動에 끈덕지게 이용하고
있는 이상 韓國이 이에 어떤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北韓의 축구단이 한때 유럽에 나타나고 그 무용예술단
이 日本이나 아랍世界에 나타났을때 그곳의 저널리즘이 마치 秘墳

에서 온 사람들을 보는것 같이 흥분했던 갖가지 事例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大衆的 흥분은 北韓에 대한 親密感을 자아내고 상대적으로 韓國에 대한 소외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左翼 저널리즘이 그런 方向으로 유도했고 일부의 자유주의 言論이 이에 동조했던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그것을 나무랄 입장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요. 北韓에 對한 親密感和 그것이 政治的 同情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對應策의 과제이다. 共產主義者들은 어디서도 예술과 스포츠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데 가장 강한 執念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韓國도 예술단과 스포츠 팀을 파견할 수 밖에 없다. 이 非政治的 民間外交의 수단은 때로는 正常外交에 못지않는 힘을 發揮할 수가 있다. 그것은 정상외교가 극소수 政治的 레벨의 接觸에 불과하지만 예술이나 스포츠는 広範한 대중의 심정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단을 파견하는 경우도 南.北韓의 방법은 달라야 한다. 北韓의 경우 形式은 「민족적」인 예술이라도 그 내용은 철저히 「社會主義的」 또는 「革命的」 즉 정치적이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체제와 획일적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불가피한 제약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으므로 예술작품의 내용을 非政治的 순수예술의 정서로 일관시켜야 한다. 예술의 노골적인 정치화는 예술성을 크게 毀損시키는 것임으로 오래 人氣를 지속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선전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스포츠에 있어서도 우승위주의 악착같은 경기보다도 친선위주의 부드럽고 당당하고 깨끗한 경기를 통해 스포츠맨십을 시위하여야 한다. 만일 경기에서 스포츠맨십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國家의 이미지와 國民的 품격을 더럽히는 일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파견될 선수들의 정신단련과 품격의 도야는 경기기술의 연마이상으로 중요하다. 예술단이 韓國의 美와 정서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스포츠 팀은 韓國의 体力과 감투 정신과 기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예술과 스포츠가 모두 韓國의 국민성과 재능과 國威를 測定하는 尺度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면에서의 對外的 活動은 對外宣傳活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5) 出版物의 발행 배포

對外的 宣傳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出版物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北韓은 이에 막대한 재력과 정력을 소비해왔다. 오늘 金日成의 저작들은 韓·英·獨·仏·露·日·中·西班牙 및 힌두 아랍어로 번역되어 세계 도처에 살포되고 있음은 勿論 화보, 주간신문 각종 월간, 팜프렛등을 인쇄하여 살살이 돌리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개인과 그 가족의 「애국적」 투쟁을 선전하는 단행본도 각국어로 수다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도서관과 일반도서관에서는 北韓의 선전적 출판물들은 험사리 찾아볼 수 있으며 사실상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상당히 읽히고 있는듯 싶다. 평양의 「外交出版社」는 이러한 선전물들을 계속 간행함으로써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의 신화와 그의 「主体思想」을 핵심으로 한 개인숭배 그리고 北韓의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北韓은 미국의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등의 권위 있는 일간지는 勿論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콩고(브라자빌), 탄자니아,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네팔등 第3世界에 속해있는 나라들의 신문사와 출판사로 하여금 金日成의 이름으로 된 논문, 연설, 담화를 보도 게재케 하는데 엄청난 廣告費를 지불하고 있다. 73年 한해만해도 金日成의 「천재적 勞作들」은 세계 수10개국에서 30여개 民族語로 수천만부나 번역 출판되었으며 무려 1億만부를 훨씬 넘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출판물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北韓의 覺機關誌는 과장하고 있다. (註17)

北韓의 선전원들이 이러한 출판물의 살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전상의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ㄱ) 김일성은 日帝통치의 暗黒時代에 민족해방투쟁에 헌신 분투한 절세의 애국자인 동시에 위대한 공산주의 자라는 것

(ㄴ) 그는 상당한 기간의 신중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간고한 抗日 革命鬪爭의 經驗을 통해 朝鮮革命思想 최초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黨을 창건한 革命的 「天才」의 영재라는 것.

(ㄷ) 그는 1930년초에 이미 오늘의 北韓共產政權의 모체인

「人民政府」를 민족통일전선노선에 입각하여 만주에서 조직했고 北韓의 현 「共和国」은 이의 정통적 계승자라는 것.

(ㄹ) 그는 민족적 명분에서 보나 맑스-레닌主義의 革命 이데올로기에서 보나 南北韓을 통한 유일무이한 정통적 지도자라는 것.

(ㄹ) 조선은 소련군이 아니라 주로 김일성 指揮下의 항일무장부대에 의하여 해방되었다는 것.

(ㄹ) 그는 한국전쟁에서 「미제침략군」을 격파함으로써 「미제」가 몰락하는 사초를 열어 놓았다는 것.

(ㄹ) 그는 낙후하고 전쟁에 파괴되었던 北韓에서 최단시일내에 工業化를 이룩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ㄹ) 그는 外勢의 干涉을 받는 일 없이 主體를 견지해온 가장 自主的이고 독창적인 南北人民의 유일한 민족적 영도자라는 것.

(ㄹ) 그는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독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社會主義로 나아가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준 「人類의 태양」이라는 것.

(ㄹ) 그는 항일무장투쟁과 抗美救國鬪爭을 차례 차례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 틀림없다는 것.

이상과 같은 선전은 南韓內에서는 하등의 공명을 받고있지 못하지만 韓國의 歷史와 실정에 무지한 外國人들에게는 影響을 줄 수 있다. 만일 韓國이 스스로의 출판물을 가지고 이에 대항하지 않

는다면 外國人들이 接觸할 수 있는 자료는 北韓의 선전물 밖에는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선전은 더욱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出版物에 의한 対応措置는 시급하다. 오늘까지 韓國의 對外宣傳用 出版物이 北韓에 비하여 量的으로 지나치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韓國도 週刊, 日刊, 奎달리, 팜프렛, 단행본등을 주요한 外國語로 다량 출판 배포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그 編輯方針에 있어서 北韓의 수법을 따른다면 도리어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개방사회는 개방사회로서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韓國은 있는 歷史的 사실과 나라의 실정에서 긍정적인 것을 客觀적으로 소개하고 지나친 과장이나 歪曲, 造作은 嚴格히 피하여야 한다. 公開社會에 관한 정보는 다양하고 풍부함으로 어떠한 기만선전도 오래 갈수 없고 결국은 폭로되기 마련이며 그때는 극히 정확하고 공정한 宣傳材料마저 不信을 당하고 배척되기 마련이다. 이점은 공개사회와 폐쇄사회의 기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第3世界나라들이나 기타 신생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民族主義運動과 共產主義運動의 역사를 정확히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北韓의 황당무제한 金日成宣傳을 자연스럽게 폭로하여야 한다. 또한 北韓의 대남공격도 일일이 실증을 들어 논박하는 작업에 더욱 정력을 기울리면서 이런 논박이 說得力을 가지도록 그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것이다. 第3世界나라들은 대개가 反帝國主義的이고 反歐美的이며 民族的 孤立, 自立經濟, 革命, 사회주의, 평화의

문제에 예민하고 그들의 진로에서 많은 고민을 알고있는 나라들이다. 韓國은 美國의 동맹국이요, 자본주의국가요, 친서방적이라는 점에서 이 나라들에 대한 선전활동이 가장 어려운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들에 대한 선전에서는 韓國이 미국의 단순한 군사기지나 「殖民地」가 아닌 自主獨立國이라는 점, 韓國과 미국과의 방위체제는 韓國의 자존상 必要해서 扞한 것이라는 점, 韓國은 결코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실히 念願하고 있다는 점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선전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요컨대 韓國의 民族的 이미지, 平和의 이미지, 文化的 이미지를 심어나가는 방법으로 北韓의 집요한 모략선전을 봉쇄해야 한다. 지금 김일성은 第3世界에 대한 선전에다 최대의 열을 올리고 있으며 北韓도 第3世界에 속해 있다고까지 공언하면서 그곳의 동조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韓國도 第3世界의 포부와 각박한 現實을 이해하는 관용을 표시하면서 韓國의 입장에 대한 共感을 求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6) 그 밖의 文化的 接觸

出版物 밖에 중요한 것에는 映畵가 있다. 노골적인 政治的 의도가 게재되지 않은 극영화, 문화영화, 도큐멘타리를 촬영하여 韓國을 소개하여 北韓의 선전이 만들어낸 暗黑的이요, 처절한 對韓印像을 시급히 말살할 必要가 있다. 비단 第3世界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韓國에 대한 인상과 인식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실제적 현실보다도 훨씬 나쁘다. 文化映畵

나 도큐멘타리로 韓國의 教育機關(주로 대학), 연구소(이를테면 키스트), 음악, 무용, 고적, 공업발전상등을 널리 알리고 극영화로써 韓國의 文化水準과 예술적 재능을 인식시키는 努力이 바람직하다. 映画는 더전히 가장 감각적이고 종합적인 弘報의 수단이다. 영화는 고급지식인에서 教育없는 대중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선전의 수단이며 누구나 부담없이 興味를 가지고 接近할 수 있는 것이요,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들어 影響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文化宣傳만 가지고는 뒤떨어진 나라들의 호감을 살수는 없다. 벌써부터 부분적으로 시도되어온 바이지만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들에는 醫師, 기술자, 기능공들을 파송하여 민중의 생활을 실제로 돕는 일이 必要하다. 韓國인이 의술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실생활면에 기여한다는 것은 가장 親近한 인간적 우애를 북돋울 수 있다. 지금까지 歐美諸國은 이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지만 그 나라들은 월등히 생활수준이 높아 우월감을 가지는데다 과거의 지배자요 白人이라는 점에서 根本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努力은 자칫하면 「신식민주의」政策으로 간주되게 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후진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늘 중공의 기술자들이 아프리카제국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논할일이 아니다. 韓國도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더욱 추진시켜 현지민들의 일상생활로 파고들어가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들의 정치의식에도 반영되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対応上の 技術問題

북한의 대외선전에 対応함에 있어서 韓國은 이상에서 나열한 대응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여기에는 뛰어난 기술의 터득이 요청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 정치선전의 기술을 1세기를 두고 연마해왔으며, 오늘에도 蘇聯, 中共 및 여타의 공산주의국가들은 非共產主義國家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率의 예산을 선전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의 대외선전활동과의 대결에 있어 戰略的 高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약속한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대책은 사람이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므로 대외홍보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기술훈련은 절대로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병사들의 전투훈련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띄고 있는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대외선전의 기술과 관련하여 몇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첫째로 홍보활동원들은 최소한 한나라에 관해 깊은 전문지식과 그 나라의 言語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中東으로 파견되거나 中東문제를 국내에서 담당 한 사람은 中東의 역사와 정치, 문화, 경제, 군사에 관해 전문지식을 터득하고 아랍語를 구사할 줄 알아야 대외선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곳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훈련없는 홍보원을 편의상 아무데나 배치하거나 수시로 전보 발행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대책이 못된다. 지금까지 韓國政府의 인사정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훈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만은 틀림없다. 북한이라고해서 對外宣傳要員들이 모두 이상적으로 훈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소련과 中共의 지원을 강하게 받고있는 것이 확실하다. 세계혁명을 자기대로의 노선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對外宣傳과 그것을 위한 연구는 상당하다. 특히 蘇聯의 경우는 세계각국 또는 지역의 연구에 놀랄만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그것을 원용하고 측면지원을 받을 위치에 있으며 이 면에서 韓國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지원과는 비교가 안되는 듯 싶다.

(ㄴ) 둘째는 國內에다 대외선전활동을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홍보요원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본격적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와 선전의 시대에 그러한 센터의 운영없이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공산주의국가의 선전활동에 대항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런 연구와 훈련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산발적이고 형식적이며 대외선전연구에 철저히 책임을 맡은 부처가 있는 듯 싶지 않다. 그리고 홍보요원들도 업적위주의 승진기준이 제대로 서지 않아 기술연마 연구에 열의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대외선전활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기초 훈련체제가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은 급속히 지정해야 할 결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ㄷ) 대외홍보활동에 종사하는 현지의 요원들은 北韓의 활동방법, 蘇聯 및 中共의 활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사 정리하여 체계적인 資料를 제시하고, 서울의 책임부처는 이 資料에 입각하여

새로운 대책의 수립과 낡은 대책의 시정을 시도해야 한다.
상대방의 활동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그 主力의 공격점과 공격전술이 머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 이쪽의 대응책은 허망한 존재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선전동태를 항상 면밀히 고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위에 가능한 한 홍보요원들의 회의를 자주 열어 지혜를 결집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할 것이다. 여기서는 현지에서 실제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존중되어야하며 관료적 위계질서에 의하여 밑의 사람들의 의견이 억압되거나 묵살되는 폐단은 대담하게 극복되어야 한다.

(㉒) 共産主義國家들의 선전활동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주시하는 그 경험을 배워야 할 것은 美國, 영국, 프랑스등 자유세계의 대외선전활동이다. 한국도 공개 사회에 속하고 있는 만큼 共産主義國家의 수법보다는 자유국가의 수법에서 훨씬 더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외선전에 있어 오래고도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歐美諸國 日本 등 자유국가는 우리와는 국제정치상의 위치가 다르고 당면한 사정이 다르고 대외적 영향력이 다르고 소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다르므로 그 나라들의 대외 선전방법이 그대로 韓國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유세계라는 입장에서 선전기술상 한국은 많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㉓) 한국은 분단국이며 공산주의북한과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대외선전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韓國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흡사한 현실에 처해있는 나라를 즉 분단국의 대외선전방법은 크게 참고가 된다.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국토가 분단된 나라는 한국, 독일, 중국의 세 곳 뿐이다. 또한 이 세 나라는 같은 분단국이지만 분단의 경위와 상황과 국력이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꼭 같은 민족이 공산주의 문제 때문에 둘로 갈라져있다. 공산주의의 半分과 어떤 형식으로든 대결하고 있고, 앞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西獨과 대만의 대외선전활동에서 가장 큰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힘의 비중에서 共產主義東獨을 압도하고 있으면서도 蘇聯의 잠재적 위협하에 놓여있는 西獨과 7억 5천만 인구의 中國本土와 절망적으로 대치하고있는 국제적 지위가 나날이 약화되고 있으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놀랄만큼 안정되고 번영하고 있는 대만에 비할 때 그 중간지점을 점하고있는 것이 韓國이라고 할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스스로의 입장에 적합한 대외선전활동을 벌리고있지만 그들의 방법에도 韓國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많으리라 함은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연구하고 추려내어 韓國의 대외선전활동에 활용하는 노력은 충분히 기우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끝으로 電波미디어의 관리문제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韓國語放送은 북한내 청취는 물론 중국, 蘇聯, 日本등

에 거주하고 있는 韓人僑胞들의 상당수가 듣고 있음은 여러 단편적 소식에 의하여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의식하고 프로그램을 북한것에 비하여 보다 재미있고 계몽적이며 명랑하게 만들어 더욱 많은 청취자를 끌 수 있도록 머리를 쓴다면 북한방송을 어렵지 않게 누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방송은 획일적이며 정치선전 일색이요 여러 면에서 생강하고 보도의 내용이 극히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韓國의 방송은 이 약점을 역용해야 한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소식을 개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한국적 특징을 가진 민족문화 — 盟, 가요곡, 가곡 등을 다채로히 깔며 민족적 정서를 풍부히 담을 때, 한국의 방송은 상당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의 내용, 특히 뉴스나 시사해설, 논평 등은 어디까지 객관성을 지녀야만 청취자를 끌고 이름을 오래장악할 수 있다. 한국의 방송은 第2次大戦 당시의 BBC 방송이 영국인은 물론 적국의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으리만큼 공정하여 무적의 권위를 쌓아 올렸던 것 같은 위치 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겠으나 목표는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노력만 기우리면 우리 방송은 黨路線에 따른 천편 일률적인 정부공식방송만을 들어 염증이 난 공산세계내의 교포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확신해서 무방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英語, 中國語, 露語, 日本語放送도 韓國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美國人, 蘇聯人, 中國人, 日本人 聽取者를 상

당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언어로 해외방송을 시도해 할때도 과연 효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는 크게 의문시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거리문제다. 그러므로 방송에 있어서는 韓國의 바로 주변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몇개국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며, 널리 형식적으로 벌려 놓는 재력과 능력의 분산을 피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4. 結 語

오늘 대외선전활동은 세계적으로 큰 경쟁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大小를 막론하고 이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기술도 점점 科學化해가고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외선전이 국제정치나 외교경쟁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단적인 증거다. 현시대에는 바로 세계선전전의 시대라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韓國도 이에 응당한 정력을 기울여야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치밀한 대외선전전에 의하여 일방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선전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선전의 기술이 발달한 대신 선전을 간파하는 사람의 판단능력도 그만큼 예리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선전만으로 자국을 美化하고 자국에 대한 외국의 인상을 바라는 대로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허위선전이나 기만선전 또는 과장선전은 적어도 자유

사회에 관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설사 선전이 효과를 거두어 자국에 대한 對外的 인식을 최상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곧 실질적인 政治的 효과로 轉化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韓國의 이미지가 좋고 韓國民이 국제적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시리아나 말리共和國이 外交的으로 北韓을 제쳐 놓고 韓國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나라에 대한 外交的 支援与否는 자국의 國家利益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이 北韓의 對外선전활동과 대결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제압할 경우라도 그것이 즉각적인 政治效果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對外宣傳 활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財力의 낭비로 보일 것이다. 對外선전활동에서는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성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韓國이 北韓의 선전전에 대한 對항선전을 포기할 때는 여기서 오는 피해는 신속하며 막대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적군과 대치하여 진지를 고수하고있는 兵士가 전진이 극히 어렵고 느리다고 느끼고 일단 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할 경우 敗北는 신속하고 치명적이라는 이치와 흡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때 對항선전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는 물론 北韓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對外선전을 위해서는 선전할 수 있는 밀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전은 대중에 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는 틀림 없지만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는 없는것을 선전만으로 자랑할 수도 없으며 있는 것을 감출수도 없다. 이것은 세계가 유리관안의 물체를 드러다 보듯이 그 내용을 알고있는 公開社會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韓國이 북한 의 허위선전, 왜곡선전을 격파하는 일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대응책이다. 韓國의 장점과 강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韓國社會自体가 세계의 공인을 받을 만큼 健全하여야 한다.

요전대 가장 좋은 선전자료는 바로 있는 現實 그것이다. 現實이 중상을 받을 만 할때는 선전의 기술로서 그것을 일시 은폐 또는 挑発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선전원도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韓國社會가 비록 낙원이 되었다고 해도 北韓의 선전은 이것을 지옥으로 묘사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하한 중상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선전은 韓國이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와 휘장을 소멸시킬 수는 있다.

그러므로 韓國이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에 직면하여 예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은 불을 여지가 없지만 이와 병행하여 自体의 充實化가 힘차게 추진되어야만 북한의 모든 선전을 허위로 입증할 수 있다. 그것은 再言하거니와 가장 좋은 선전자료는 바로 현실이며 가장 뛰어난 宣傳方法은 바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南北간의 정치선전전이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있는데 선전의 놀랄만한 위력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선전의 제약성도 아울러 이해해야만 韓國의 대응책은 보다 완전한 것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